

011/200

# 新 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통화정책 - 경제정책 - 오버슈팅에 적용  
평가원 기출, 경제지문의 흐름.  
경제학, 수학 공식, 원리, 이해 적용 필수

##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b>1 정보군집.</b> <b>단독문항.</b> 정책수단의 특성 1. 강제성 2. 직접성 3. 자동성 4. 가시성 28번 문항 발췌독 ㄱ	전형적인 최근 기출 구조와 흐름을 보여줍니다.  1. 정보군집 1단락, 5단락 2. P-C-S 흐름 3. 3단락 장기환율원리 4. 4단락 단기환율원리 5. 원리 이해 바탕 적용 6. 주제 집중 7. 구조 처리
<b>2 P</b> P 오버슈팅 C 물가경직성, 불안심리.	1단락 정책수단의 특성 정보군집 발췌독 필요
<b>3 C 장기환율↑</b> C 단기물가경직vs단기환율신축 장기환율 원리 장기환율 = 자국물가/외국물가 실질통화량 = 통화량/물가 *통화량↑ 물가↑ = 실통 유지 *자국물가↑/외국유지=장기↑	2단락 오버슈팅. 문제
<b>4 C 단기환율↑↑</b> 국내통화량↑ ⇨ C물가경직 E실질통화량↑ ⇨ 시장금리↓ ⇨ 기대수익률↓ ⇨ 외국 단기 투자 자금 유출 ⇨ 원화 매각, 달러 구입 ⇨ 원화공급↑, 달러수요↑ ⇨ 원화가치↓, 달러가치↑ ⇨ 과거 1000:1 ⇨ 2000:1 : 환율의 오버슈팅	3단락 장기 환율원리. 상승
<b>5 S 독립정보군집</b> 미세 조정 정책 수단 정보가치 높은 내용 집중	4단락 단기 환율원리
5단락 정보군집. 하지만 주제, 구조 집중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통화정책의 기본.  
경제 정책의 원리/인과를 바탕으로 그것을 적용합니다.  
환율의 폭등은 IMF때 있었던 현상으로 우리 경제에 큰 위기 그리고 우리 가계를 비롯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시기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변화와 함께, 안정되어있던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하며, 때로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와 위기를 심어줍니다.

물론 유교.  
조선후기의 문제  
일제 강점기의 문제  
광복 후의 문제  
6.25전쟁 후의 문제  
가난, 독재, 등등의 수많은 문제들에 기인한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적 문제의 근원은 IMF가 가장 큼니다.  
  
IMF에 관해서는 추후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평가원은  
2018수능 오버슈팅  
2020수능 BIS지문등으로 그 흐름을 잡고있습니다.

지문보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정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사실 별 내용 없습니다.

이미 수차례 연습된, 독립정보군집의 지문으로,

1. 강제성
  2. 직접성
  3. 자동성
  4. 가시성 내용을
  - 5개 선지로 묻겠구나.
- 발췌독 하면 편한 문제.

2단락은

많은 내용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례, 환율 변동 현상 원리 설명을 의도하는 지문인데

환율의 '폭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거 지문에서는

C1. 물가경직성

C2. 금융시장변동

E. C3. 심리

등의 원인이 되어

E 오버슈팅이 발생한다.

오버슈팅은 예상과는 다른 급등, 급락...

등등의 정보를 다 읽어와서 물어보는 선지들에 대응시키는 문제들이었지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단락의 정보군집, 단독문항으로 출제하는 수준이면.

또한 정보 유무 처리하는 것은 기본중에 기본이라, 더 심화해서 물을 이유도 없습니다.

요즘 수능은,

그래서 이 2단락의 역할은, 글쓴이도는 등을 처리하고 판단하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P 오버슈팅

C 여러 가지 이유

좀 더 자세히는 다음 단락에 나올테니, 그 인과와 원리를 이해 적용하는 문제로 이어지겠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E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우선 정보의 군집을 장기 vs 단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인과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좀 더 정보가 디테일해서, 실제 이해해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를 읽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력 평가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매력 평가설이 무엇이길래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집중해 처리하셔야 합니다.

지문 보겠습니다.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3 C 장기환율↑  
C 단기물가경직vs단기환율신축  
장기환율 원리  
장기환율 = 자국물가/외국물가  
실질통화량 = 통화량/물가

국내 통화량 증가/물가 증가 ⇨ 실질통화량 유지

자국물가 증가 / 외국물가 유지 ⇨ 장기환율 오름

문제는. 정보가 불충분합니다.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통화량이 국내 통화량인지, 외국통화량인지도 없고,

또한 물가가 국내 물가인지, 외국 물가인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국어 교육과에 기반한 국어 사고' '상식' '하향식' '매락' '상향식' 적으로 보면, 저 부족한 정보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항상 말하는

**글 쓴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며 의사소통 = 독서**

또한 가장 중요한 정보는,

결국 장기 환율은 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를 추후 A급, B급, C급 정보로 나누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4단락은

당연히, 장기 환율 원리를 설명했으니, 단기 환율 원리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3 C 장기환율↑**  
C 단기물가경직vs단기환율신축  
장기환율 원리  
장기환율 = 자국물가/외국물가  
실질통화량 = 통화량/물가

물가 : 계약이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쉽게 올리지 못합니다.

물가 : 단기 경직

통화량 : 하지만 대출을 받거나 해서 돈은 단기간에 시중이 풀릴 수 있습니다.

실질통화량 = 통화량 증가 / 물가 유지 => 결국 실질통화량 ↑

실질통화량이 늘었으니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대출을 해줄려는 은행이 많아집니다. 당연히 예금에 대한 대가인 금리는 ↓

금리↓ 하면 기존에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거나 채권을 구입했거나 하는 등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수익률도 ↓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금리는 그대로라면 당연히 자금 유출 해서 더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가야죠

그 과정에서 시장에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삽니다

원화수요↓ 원화공급↑ ⇨ 원화가치하락↓

결국?

1달러 1000원하던 것이

1달러 2000원을 줘야합니다.

환율이 급등하는 오버슈팅 현상이 있겠죠.

이게 핵심이고,

나머지 내용은 부수적이죠. 왜냐하면, 요인들이 클수록 심해진다 등의 내용,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 완화되는 내용은 결국

**4 C 단기환율↑↑**  
국내통화량↑ ⇨ C물가경직 E실질통화량↑  
⇨ 시장금리↓ ⇨ 기대수익률↓ ⇨ 외국단기투자자금유출  
⇨ 원화 매각, 달러 구입 ⇨ 원화공급↑, 달러수요↑  
⇨ 원화가치↓, 달러가치↑ ⇨ 과거 1000:1 ⇨ 2000:1  
: 환율의 오버슈팅

이 원리에서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2단락 문제 제기, 3단락 원인1, 4단락 원인2

5단락은 해법이겠죠.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증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㉔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역시 정보 디테일 넘칩니다.

하지만 간단하죠.

주제, 정보가치 높은 내용에 집중.

결론 단락이니?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㉔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요약 정리하는 지시어가 중요합니다.

정보군집, 독립문항 31번 바로 이어집니다. 발췌독. 위의 가장 정보가치 높은 내용 바탕 1~5선지 와리 가리 해보세요

31.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기치 못한 외환 손실에 대비한 환율 변동 보증을 수출 주력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 ② 원유와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환율 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 ③ 환율의 급등락으로 금융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을 통제하여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
  - ④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 수입 대금 지급을 위해 외화를 빌리는 수입 업체에 지급 보증을 제공한다.
  - ⑤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금리 변동, 해외 투자 자금 동향 등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바로 정답 3번 보입니다.

글의 주제

역시나.

환율.

정답 팡! 집중.

와리가리 하더라도, 쓸데 없는, 정보가치 낮은 내용에서 어그로 끌리는게 아닙니다.

요약 정리하는 지시어가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정보군집

1단락 내용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㉔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자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28. ㉔를 바탕으로 정책 수단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② 전기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높다.
- ③ 문화재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자연 보존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④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 맡겨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정부 기관에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직접성이 높다.
- ⑤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 계층에 제공하던 복지 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을 감독하는 것보다 자동성이 높다.

와리가리 하시면

예를들어 4번 선지 직접성

정부가 직접 하면 직접성 높고

정부가 민간 위탁 하면 직접성 낮고

민간에 맡겼으니 직접성 낮아야죠.

정답은 5번

자동성은 기존 조직 활용. 신설 조직 안 하는 것.

정보군집 문항의 특징 잘 봐두시고, 지문 구조, 정보량, 특성에 따라 판단 하여 적용바랍니다.

27.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 ②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 폭이 작을 것이다.
- ③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 ④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에 반응할수록 오버슈팅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⑤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사실 글 전반적인 내용으로 보이지만,

1번선지를 보는 순간!

딱, 주제를 잡았다면 역시 바로 보입니다.

**3 C 장기환율↑**

주제인 장기환율은 결국 올랐는데?

정답 1번.

아시겠죠? 주제 집중. 정보가치 높은 것 집중.

**4 C 단기환율↑↑**  
 국내통화량↑ ⇨ C물가경직 E실질통화량↑  
 ⇨ 시장금리↓ ⇨ 기대수익률↓ ⇨ 외국단기투자자금유출  
 ⇨ 원화 매각, 달러 구입 ⇨ 원화공급↑, 달러수요↑  
 ⇨ 원화가치↓, 달러가치↑ ⇨ 과거 1000:1 ⇨ 2000:1  
 : 환율의 오버슈팅

이제 단기 환율입니다.

지문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봐야 보기가 이해됩니다.

로 정답 3번 보입니다.

29.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국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금융 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A국 통화를 팔고, B국 통화를 사서,

A국에 투자된 금액을 B국으로 옮길거예요.

이 과정에서 A국을 우리나라라고 본다면,

원화수요↓ 원화공급↑ ⇨ 원화가치하락↓

결국?

1달러 1000원하던 것이 1달러 2000원을 줘야합니다.

즉, 단기 환율 급등. 오버슈팅 일어나겠죠.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맞죠?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다.

B국에 통화량이 많아집니다.

아까 4단락 환율 변동 원리

B국 실질통화량 = 통화량 증가 / 물가 유지

=> 결국 B국 실질통화량 ↑

실질통화량이 늘었으니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대출을 해줄려는 은행이 많아집니다. 당연히 예금에 대한 대가인 금리는 ↓

금리↓ 하면 기존에 우리나라에 돈을 빌려주거나 채권을 구입했거나 하는 등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수익률도 ↓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금리는 그대로라면 당연히 자금 유출해서 더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가야죠

결국, B국으로 자금 유출이 완화됩니다.

그냥, 지문 내용 그대로 적용이에요.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두어야 한다.

이 부분은 지문에는 없는 내용인. 상식. 하향식.

기출 연계입니다.

A국 환율이 오른다.  
 A국에서는 10만원에 A스마트폰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100달러 주고 B국에서는 샀는데  
 10만원 = 100달러 환율이  
 20만원 = 100달러 환율로 올랐고  
 그것을 A국에서는 50달러에 팔 수 있게 되었죠  
 또는 100달러에 똑같이 팔더라도  
 10만원 벌던 것이 20만원이 됩니다.  
 당연히 A국 수출 하는 회사는 개이득.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개이득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힘든데,  
 (10만원이면 100달러짜리 수입했는데, 이제는 20만원을 줘야  
 하니 수입은 힘들니다)  
  
 그럼 수출이 잘 되는데,  
 수출 주도형 국가는 당연히 개이득이죠.  
 그럼 환율이 올라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거나, 상쇄되니 추이를 보고, 문제만 콕콕 짚어 해결해야겠죠?

- ①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한국. 미국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우선 4단락 원리

**4 C 단기환율↑↑ 원리**  
 국내통화량↑ ⇨ C물가경직 E실질통화량↑  
 ⇨ 시장금리↓ ⇨ 기대수익률↓ ⇨ 외국단기투자자금유출  
 ⇨ 원화 매각, 달러 구입 ⇨ 원화공급↑, 달러수요↑  
 ⇨ 원화가치↓, 달러가치↑ ⇨ 과거 1000:1 ⇨ 2000:1  
 : 환율의 오버슈팅

4단락 원리 그대로 적용.

**A국 (한국)**  
 국내통화량↑ ⇨ C물가경직 E실질통화량↑  
 ⇨ 시장금리↓ ⇨ 기대수익률↓ ⇨ 외국단기투자자금유출  
 ⇨ **B국(미국)으로 투자 자금 유출**  
 원화 매각, 달러 구입 ⇨ 원화공급↑, 달러수요↑  
 ⇨ 원화가치↓, 달러가치↑ ⇨ 과거 1000:1 ⇨ 2000:1  
 : 환율의 오버슈팅

- ①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선지 내용 적용.

**A국 (한국)**  
 국내통화량↑ ⇨ C물가경직 E실질통화량↑  
 ⇨ 시장금리↓ ⇨ 기대수익률↓ ⇨ 외국단기투자자금유출  
 ⇨ **B국(미국)으로 투자 자금 유출**  
**하러 했으나, B국 금리 하락**  
 ⇨ B국으로 자금 유출 할 이유가 없어지고  
  
 ⇨ 원화 매각, 달러 구입 할 이유가 없어지고  
 ⇨ 원화공급↑, 달러수요↑ 할 이유가 없어지고  
 ⇨ 원화가치↓, 달러가치↑ 할 이유가 없어지고  
 ⇨ 과거 1000:1 ⇨ 2000:1 할 이유가 없어지고  
 : 환율의 오버슈팅 할 이유가 없어지고

1번 선지 안 일어나야죠? 바로 정답 끝.

- ②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환율이 장기에는 균형 환율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동반하므로 A국의 정책 당국은 외환 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
- ⑤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키므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수업 내용 바탕 보셨다면, 역시나...

주제, 구조, 원리, 공식 이해 적용...

- 30.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의 세로축 a, b, c는 [가]의 ㉠~㉣과 하나씩 대응된다. 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다음 그래프들은 [가]에서 국내 통화량이 t 시점에서 증가하여 유지된 경우 예상되는 ㉠~㉣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지문 원리를 이해해서,  
 그래프에 적용하는 문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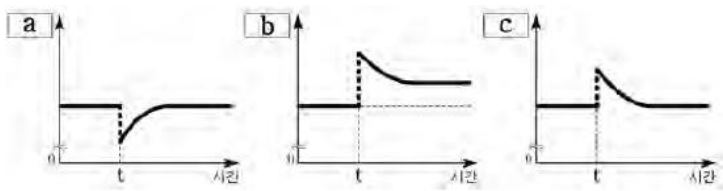
- ㉠ 실질 통화량
- ㉡ 금리
- ㉢ 환율

간단하죠. 단기 상황에 이은 장기 상황.

	현재 기준	단기	장기
실질통화량		증가	증가
금리		하락	
환율		급등	증가

**3 C 장기환율↑**  
 C 단기물가경직vs단기환율신축  
 장기환율 원리  
 장기환율 = 자국물가/외국물가  
 실질통화량 = 통화량/물가  
 \*통화량↑ 물가↑ = 실통 유지  
 \*자국물가↑/외국유지=장기↑

**4 C 단기환율↑↑**  
 국내통화량↑  
 ⇨ C물가경직 E실질통화량↑  
 ⇨ 시장금리↓ ⇨ 기대수익률↓  
 ⇨ 외국 단기 투자 자금 유출  
 ⇨ 원화 매각, 달러 구입  
 ⇨ 원화공급↑, 달러수요↑  
 ⇨ 원화가치↓, 달러가치↑  
 ⇨ 과거 1000:1 ⇨ 2000:1  
 : 환율의 오버슈팅



하락한 것은 금리가 유일. a ⊖

b와 c둘다 급등 후

b는 증가 : 단기-장기 환율 ⊕

c는 회귀 : 통화량이겠쥬? ⊕ 4번 선지!

(단, t 시점 근처에서 그래프의 형태는 개략적으로 표현하였으며, t 시점 이전에는 모든 경제 변수들의 값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어 왔다고 가정한다. 장기 균형으로 수렴되는 기간은 변수마다 상이하다.)

- |   |   |   |   |
|---|---|---|---|
|   | ⊖ | ⊖ | ⊕ |
| ① | a | c | b |
| ② | b | a | c |
| ③ | b | c | a |
| ④ | c | a | b |
| ⑤ | c | b | a |

A급 / B급 / C 급 정보로 다시 구조를 보면

**T+I.A (Topic + Information Architecture)**

A급	B급	C급
<b>1</b> 정책수단의 특성	1. 강제성 2. 직접성 3. 자동성 4. 가시성 의 정의	1. 강제성 2. 직접성 3. 자동성 4. 가시성 예시적용
정보군집이라, c급 정보까지 활용하면서, 문제에 발체득 적용했겠죠?		
<b>2 P</b> P 오버슈팅	C 물가경직성. 불안심리.	나머지 설명
글의 구조상 기출 흐름상, 요즘 기출은 구체적인 원리, 그 적용, 그 이해를 바탕으로한 문제풀이니 딱히 중요한 정보 없겠구나, 다음 지문 집중! 하는 흐름 잡았겠죠?		
<b>3 C 장기환율</b> 장기환율 원리	C 단기물가경직 vs 단기환율신축 장기환율 = 자국물가/외국물가 실질통화량 = 통화량/물가 *통화량↑ 물가↑ = 실통 유지 *자국물가↑/외국유지 = 장기↑	나머지 설명
<b>4 C 단기환율</b> 장기환율 원리	국내통화량↑ ⇨ C물가경직 E실질통화량↑ ⇨ 시장금리↓ ⇨ 기대수익률↓ ⇨ 외국 단기 투자 자금 유출 ⇨ 원화 매각, 달러 구입 ⇨ 원화공급↑, 달러수요↑ ⇨ 원화가치↓, 달러가치↑ ⇨ 과거 1000:1 ⇨ 2000:1 : 환율의 오버슈팅	나머지 설명
기출 흐름상, 요즘 기출은 구체적인 원리, 그 적용, 그 이해를 바탕으로한 문제풀이니 여기는 B급 정보! 많고, 활용할 가능성 높으니, 이해, 수학 공식 정리하면서 접근 필요했습니다.		
<b>5</b> 미세 조정 정책 수단	이처럼~ 뒤의 내용	나머지 설명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7~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보군집, 단독문항 28번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정책 수단은 1. 강제성, 2. 직접성, 3. 자동성, 4. 가시성의 ②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상식

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 보자.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P 위험에 ㉡ 노출될 수 있다. 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E 현상을 P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어휘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속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장기 환율 원리 공식

단기 환율 원리 공식

그러나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정보군집 독립문항 31번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를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27.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으므로 장기의 환율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 ㉡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가 경직적인 경우에 비해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 폭이 작을 것이다.
- ㉢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물가의 조정 속도보다 환율의 조정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 ㉣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오버슈팅 정도는 커질 것이다.
- ㉤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발췌독

28. ㉠을 바탕으로 정책 수단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② 전기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높다.
  - ③ 문화재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자연 보존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
  - ④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 맡겨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정부 기관에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직접성이 높다.
-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 계층에 제공하던 복지 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을 감독하는 것보다 자동성이 높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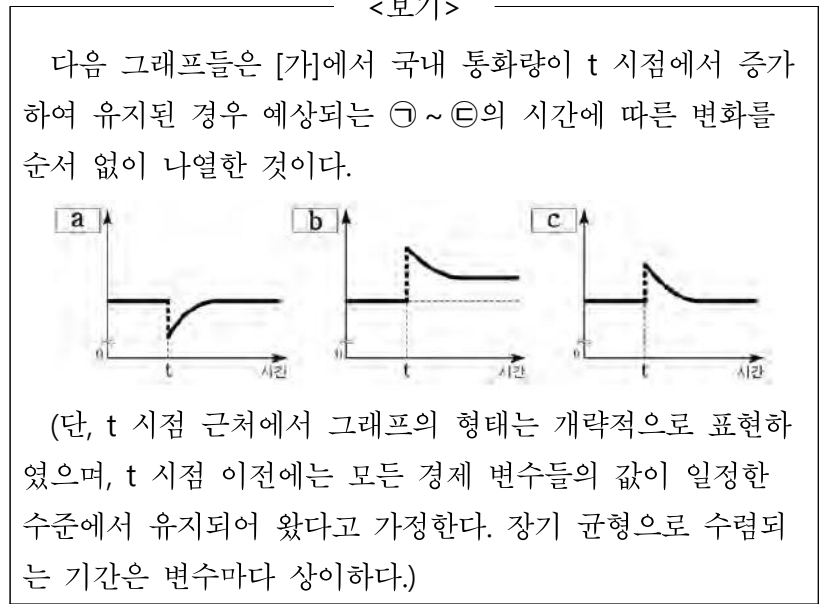
A국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최근 경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금융 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기출 연계 배경지식**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진정될 것이다.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두어야 한다.

-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질 것이다.
- ②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환율이 장기에는 균형 환율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④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동반하므로 A국의 정책 당국은 외환 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
- ⑤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 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0.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의 세로축 a, b, c는 [가]의 ㉠~㉣과 하나씩 대응된다. 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
①	a	c	b
②	b	a	c
③	b	c	a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④	c	a	b
⑤	c	b	a

지문 원리      선지

31.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기치 못한 외환 손실에 대비한 환율 변동 보험을 수출 주력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 ② 원유와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환율 변동에 따라 조정한다.
  - 환율의 급등락으로 금융 시장이 불안정할 경우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을 통제하여 환율의 추세를 바꾼다. **정보 가치 가장 높음**
  - ④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 수입 대금 지급을 위해 외화를 빌리는 수입 업체에 지급 보증을 제공한다.
  - ⑤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금리 변동, 해외 투자 자금 동향 등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32.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동떨어져
- ② ㉡ : 드러낼
- ③ ㉢ : 불러온다
- ④ ㉣ : 되돌아오면서
- ⑤ ㉤ : 꺾히는